

# 벌써 팀에 녹아든 김연경 “저 없으면 허전하다네요”

### “목표는 통합 우승...트리플크라운도 하고파”

### 내달 30일부터 KOVO컵 프로배구대회 출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더 지났지만 친정은 친정이었다.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슈퍼스타’ 김연경은 빠른 속도로 팀에 적응 중이다.

김연경은 프로배구 V-리그 흥국생명 1년 계약을 맺고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2008~2009 시즌 종료 후 일본으로 떠난 지 11년 만이다.

지난 14일야에 처음 새로운 팀에 합류한 김연경은 보름 동안 제법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다.

29일 용인시 기흥구 흥국생명체육관에서 열린 구단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한 김연경은 “처음 보는 선수들이 있어서 이름을 외우는데 고생했다”면서 “이름도 외우고 먼저 다가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김연경은 어린 선수들과 확실히 가까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낸다. 밥 먹을 때 내가 없으면 허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웃었다.

이번 주부터 공을 활용한 운동에 임하고 있는 김연경은 “감독님

의 배려로 컨디션을 올리는데 1~2주를 썼다. 몸 상태는 50% 정도”라면서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지금도 ‘김연경 1기 시절’과 같은 훈련장을 사용한다. 김연경은 “장소는 동일하네 리모벨링을 했다”면서 “체계적으로 변했다. 체력적, 기술적인 부분들로 잘 세분화 된 것 같다. 프로가 오래되다보니 선수들의 프로 의식도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증된 김연경의 복귀로 흥국생명명은 단숨에 ‘공공의 적’으로 부상했다. 세터 이다영의 가세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레프트 이재영까지 붙잡으면서 빈틈을 찾기 어려운 팀이 됐다.

김연경은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팀이 통합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V-리그 정복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두 번째로는 트리플 크라운을 하고 싶다. 마지막 목표는 감독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하면 좋겠지만

팀이 우선”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김연경은 일본과 타지를 거치면서 세계 배구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했다.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과 사회공헌활동으로 배구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더 많은 관심 받는다고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김연경은 “예능에 나가는 이유는 배구를 알리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좀 더 배구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 말고도 (여자배구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부담도 조금 들지만 내가 잘해서 앞으로 여자 배구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였다.

김연경은 쏟아지는 사랑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을 포함한 특정 선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에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와 재영이, 다영이에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원팀으로 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담된다”는 김연경은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역할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



11년만에 국내 프로배구 V리그로 복귀해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은 김연경이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다. 선수들에게 다가가 금방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들은 벌써 김연경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대표팀에서 김연경과 함께 했던 이재영은 이제는 팀에서도 좋아하는 언니와 호흡을 맞춘다.

이재영은 “언니가 워낙 열심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줘서 배울 점이 많다. 내가 어릴 때 같이 언니와 같은 팀이 되는 것이었는데 꿈을 이룬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이다영은 “코트장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나보다 더 (열정이) 좋은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이르면 국내팬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0 KOVO컵 프로배구대회부터 김연경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미희 감독은 “컵대회까지 최대한 몸을 끌어올려서 될 수 있으면 경기에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다.

## 삼성, 다니엘 팔카 총액 17만달러에 영입

### 빠른 공에 반응 좋아...정상급 장타력 보여줄 것 '기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9일 새 외국인타자 다니엘 팔카(29)와의 계약 합의를 마쳤다.

기존 외국인타자 타일러 살라디노의 허리 부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대체선수를 물색

했고 결국 팔카 영입을 확정했다.

팔카는 연봉 10만달러, 계약금 2만달러, 인센티브 5만달러 등 총 17만달러(한화 약 2억원)의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 별도로 이적료 10만달러가 발생한다.

교섭 직후 미국 현지 병원에서 촬영된 팔카의 MRI 사진을 전달 받은 삼성은 국내 병원 두 곳에 판독을 의뢰, 야구선수로서 건강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팔카는 2013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3라운드 지명선수로 프로에 입문했다. 이후 애리조나, 미네소타 트윈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이너리그 레벨에서 뛰었고, 2018년부터 2년 간 화이트삭스의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활약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154경기에서 타율 0.218, 29홈런 71타점을 기록했다. 트리플A 통산 261경기에서 타율 0.262, 54홈런 146타점을 기록을 남겼다.

삼성은 팔카가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이 좋고, KBO리그에서 필경 우 정상급 장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팔카의 주 포지션은 코너 외야수이며 1루도 가능하다.

삼성의 미국 현지 코디네이터인 애런 타사노는 “장타력이 매우 인상적인 파워히터로서 배트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KBO리그에서 홈런타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향후 팔카의 취업비자 획득, 입국 후 자가격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언택트 온택트...‘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열린다

### 내일부터 내달 3일...9개국 31척 300여 명 참가

여수시는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부산·통영·여수를 잇는 남해안 일대에서 ‘2020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도 공동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체부, 여수시,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한다.

대회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등 9개국 31척의 요트가 참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해외선수 25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선수가 요트 트레이스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언택트(무관중)대회로 진행되며, 대회 기간 동안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해상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레이스를 온택트(온라인 접속)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출발해, ‘경남 통영 도남항’을 거쳐, ‘전남 여수 소호요트마리나’에서 끝난다.

대회 첫날은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비대면 개회식이 열린다. 둘째 날은 1구간(부산~통영), 셋째 날은 2구간(통영~여수) 레이싱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호요트마리나에서 폐회

식 대신 입상한 선수단 대표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여수의 요트계류장은 웅천 장도 해상에 설치되는데, 시민들은 8월 2일과 3일 웅천친수공원이나 장도 근린공원을 가면서 대회에 참가한 요트의 화려한 외관을 볼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위해 다채롭게 준비했던 부대행사가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어 아쉽다”며 “내년에는 대회 시작이 여수에서 이루어질 계획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전남 제1의 요트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 전남체육회, 장기근속 생활체육지도자 격려 간담회 개최

### 장기근속 지도자 7명 초청 격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전남도민의 건강 전도사로써 20년 이상 장기근속중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역대 처음으로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9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 회장 초청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해온 8명의 장기근속 생활체육지도자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도민의 건강

전도사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 건강한 여가활동을 만들어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중도내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했다.

참석자는 이분희(광양), 최규대·추순철·강경희(이상 담양), 김모래(완도), 이화심, 김미숙(이상 순천) 지도자 등 7명이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김영숙(진도) 지도자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간담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지도자들의 애로사

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전라남도체육회는 이들 지도자들과 오랜 및 장기근속에 따른 정성이 가득 담긴 작은 선물도 증정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매년 20년 이상 장기근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상설하는 물론 매년 연말 ‘전남체육인의 밤’ 행사(11월 말 ~ 12월 초 개최 예정)시 공로패를 제작하여 전수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 위원장이기도 한 추순철 생활체육지도자(53)는 “김재무 회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집행부와 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장기근속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감동이 많다”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역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강한 전남’을 만드는데 일조할 각오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스포츠과학센터, 인천과 상생발전 약속

###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내달 말 개소 예정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이하 광주 센터)와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업무공유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28일 인천시체육회 미래기획단과 인천스포츠과학센터 관계자들이 광주 센터를 방문해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고 세부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광주 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컨디셔닝지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규모대회에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의 융복합 방식을 지원해 현장 밀착지원을 완료했다.

인천도 엘리트 선수들의 체계

적이고 분석적인 스포츠과학 시스템과 의학적 요소를 가미한 선진국형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 건립에 매진 중이다.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스포츠과학센터 11개 중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하며 전액 지자체의 예산(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력은 트레이너와 건강운동관리사를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인천선수촌 및 지자체에서 방문이 잇따라 향후 국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유리한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및 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이면 누구나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김창준 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시도체육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국 최초 사업인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가 하루 빨리 정착돼 우리 지역 체육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